있지만 없는 아이들

먼 타인의 이이를 사랑하라

가난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‘얼굴을 내밀어주는’ 의지할 만한 어른의 존재다.

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숭고한 것은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.

니체,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中

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무대책, 무관심, 망각을 눈 감아주고, 완충해주고, 흐리게 하고, 가장하고, 회피하고, 심지어 장려하는 거짓말들을 끊어낸다. 호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, 호명은 분명 중요한 단계이다.

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도 한국에 살 수 있었다.

보편적 출생 등록제: 미등록 이주아동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며 그냥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.

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행동

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고, 먼 이웃의 일이라며 눈 돌리지 않았을 뿐이다.

열아홉, 내년이면 쫓겨난다는 불안감

당신은 왜 한국에 살고 있나요?

한국도 이들이 필요해요

오늘이 마지막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

정직한 한 사람이 중요해요

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

사람은 그냥 사람이죠

이건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

말하는 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라도 커야 해요

슬픔이 보시가 될 때